

五神의 起源에 關한 文獻的 考察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神經精神科學教室

尹祥熙 · 李相龍

1. 緒 論

神이란 思想意識 및 모든 生命活動의 現象, 즉 生命力을 나타내는 하나의 抽象名詞¹⁾로서 <本神篇>²⁾에 “生之來謂之精 兩精相搏謂之神”이라 하여 父母의 精氣가 交合할때 神도 同時에 짓는다고 하였다.

古代 西洋에서는 精神을 五官的이고 物質的인 것으로 취급하였고, 점차 精神을 하나로 統一 시키려는 傾向이 나타났다³⁾. 그러나 東洋에서는 精神을 細分化하여, 五臟과 關聯짓는 傾向으로 研究되어졌다.

精神을 身體의 器官과 關聯지으려는 試圖는 戰國時代의 文獻^{4,5,6)}에서 처음 나타난다. 그후 <管子>⁷⁾나 <莊子>⁸⁾에서는 身體의 器官을 五臟으로 具體化시켰다. 精神을 分類하여 五行圖式에 配屬시키게 된 것은 五情^{9,10)}과 五性^{11,12)}을 五臟에 對應시킨 以後이다.

加納³⁾은 五神의 概念이 成立된 時期를 前漢 中葉에서 末期에 이른다고 했으며, 村上¹³⁾은 五神의 起源을 <黃帝內經>에 두고 있다.

西洋醫學에서는 精神活動의 中心을 腦로 보았으나, 韓醫學에서는 心臟을 中心으로 여러 臟器에 精神이 자리 잡고 있는 것^{1,2,3,14)}으로 생각하였다. 또한 心臟을 하나의 獨立된 機能으로 보지 않고 他臟腑와의 關聯性을 重視 하였으며, 無形의 精神作用도 이를 各其 實質臟器인 五臟과 關聯지어 그 生理를 體系化¹⁾시켰는데, 이 것들 ‘五神’^{3,13,15,16,17)} 또는 ‘七神’³⁾이라 부른다.

<本神篇>²⁾에서 “隨神往來者謂之魂, 並精而出入者謂之魄, 所以任物者謂之心, 心有所憶謂之意, 意之所存謂之志,

因志而存變謂之思, 因思而遠慕謂之慮, 因慮而處物謂之智”라 하여 五神(七神)의 生成과 性格을 規定하고 있으며, “心臟脈 脈舍神, 肝藏血 血舍魂, 肺藏氣 氣舍魄, 脾藏營 營舍意, 腎藏精 精舍志”^{2,16)}라 하여 五臟의 機能과 精神作用과의 關係를 밝히고 있다.

最近에 黃^{18,19,20)} 등은 精神作用의 外的表現인 七情에 對해 考察 한 바있으나, 精神作用의 基本要素인 五神(七神)에 대한 研究가 不足한 實情이다.

이에 著者는 歷代 文獻을 中心으로 五神(七神)과 五臟을 連繫하여 五行에 配屬되는 過程과 그 起源을 考察하였던 바 몇 가지 知見을 얻었기에 報告 하는 바이다.

II. 本 論

1. 內經以前文獻

1) 書 經⁵⁾

盤庚下篇 : 令予其敷心腹腎腸 歷告爾百姓于朕志 罔罪爾衆 爾無共怒 協比讒 言予一人

2) 詩 經⁴⁾

大牙桑柔篇 : 維彼不順 自獨俾臧 自有肺腸 俾民卒狂

3) 春秋左氏傳²²⁾

定公篇 : 王割子期之心 以與隨人盟

昭公篇 : 民有好惡 喜怒 哀樂, 生于六氣

4) 管子^{7,23)}

心術上篇 : 心之在體, 君之位也, 九竅之有職, 官之分也.

· 虛其欲, 神將入舍, 掃除不潔, 神不留處.

· 潔其宮, 潔其門, 去私母言, 神明若存.

· 神者至貴也, 故館不僻除, 則貴人不舍言. 故曰

“不潔則神不處”

內業篇：定心在中，耳目聰明，四肢堅固，可以為精舍。精也者，氣之精者也。氣，道乃生，生乃思，思乃知，知乃止矣。

· 心以藏心，心之中又有心焉。彼心之心，意以先言。意然後形，形然後言。

水地篇：生而目視，耳聽，心慮，目之所視，非特山陵之見也，察於荒忽。

· 是以水集於玉而九德出焉。凝蹇而為人，而九竅五慮出焉。

五行篇：董反五藏，以視不親。

5) 荀子¹⁰⁾

天論篇：天職既立，天功既成，形具而神生，好惡喜怒哀樂臧焉。夫是之謂天情，耳目鼻口形能，各有接而不相能也，夫是之謂天官，心居中虛，以治五官，夫是之謂天君。

解蔽篇：心者形之君也，而神明之主也，出令而無所受令。

6) 莊子⁸⁾

在有篇：愁其五藏，以為仁義，矜其血氣，以規法度。

7) 呂氏春秋⁶⁾

孟春紀篇：孟春之月，日在營室，昏參中，旦尾中。其一甲乙，其帝太皞，其神句芒，其蟲鱗，其音角。律中太簇，其數八，其味酸，其臭羶，其祀戶，祭先脾。

8) 春秋繁露⁹⁾

為人者天篇：人之形體，化天數而成，人之血氣，化天志而仁，人之德行，化天理而義。

王道通三篇：夫喜怒哀樂之發，與清暖寒暑，其實一貫也。喜氣為暖而當春，怒氣為清而當秋，樂氣為太陽而當夏，哀氣為太陰而當冬，四氣者，天與人所同有也，非人所能蓄也。

陰陽義篇：天亦有喜怒之氣，哀樂之心，與人相副。以類合之，天人一也。春，喜氣也，故生；秋，怒氣也，故殺；夏，樂氣也，故養；冬，哀氣也，故藏。

9) 淮南子²¹⁾

精神訓：精神對形體的生命活動有支配主宰作用：“心者形之主也，而神者心之寶也。”“精神內守形骸而不外越”心與神是人的精神，形與氣是人的肉體。因此人的形體，精神，血氣是互相依賴，密不可的。

10) 史記¹²⁾

樂書篇：故音樂者，非以娛心自樂，快意恣欲，將欲為治也。所以動盪血脈，流通精神而和正心也。故宮動脾而和正聖，商動肺而和正義，角動肝而和正仁，徵動心而和正禮，羽動腎而和正智。

趙陽列篇：兩主二臣，剖心坼肝相信，豈移於浮辭哉。

· 披心腹，見情素，隨肝膽，施德厚。

2. 黃帝內經

1) 素問¹⁴⁾

宣明五氣篇：心藏神，肺藏魄，肝藏魂，脾藏意，腎藏志，是謂五藏所藏。

六節藏象論篇：心者，生之本，神之變也；肺者，氣之本，魄之處也；腎者，主蟄，封藏之本，精之處也；肝者，罷極之本，魂之居也；脾胃大腸小腸三焦膀胱者，倉廩之本，營之居也。

2) 靈樞²⁾

本神篇：生之來謂之精，兩精相搏謂之神，隨神往來者謂之魂，並精而出入者謂之魄，所以任物者謂之心，心有所憶謂之意，意之所存者謂之志，因志而存變謂之思，因思而遠慕謂之慮，因慮而處物謂之智。

本臟篇：人之血氣精神者，所以奉生而周于性命者也。

志意者，所以御精神，收魂魄，適寒溫，和喜怒者也。

衛氣篇：五臟者，所以藏精神魂魄者也。

經水篇：五臟者，合神氣魂魄而藏之。

九針論篇：五藏，心藏神，肺藏魄，肝藏魂，脾藏意，腎藏精志也。

3) 太素¹⁶⁾

五藏命分篇：故生之來謂之精，兩精相搏謂之神，隨神往來者謂之魂，並精而出入者謂之魄，所以任物者謂之心，心有所憶謂之意，意之所存謂之志，因志而存變謂之思，因思而遠慕謂之慮，因慮而處物謂之智，故智者之養生也。

· 肝藏血，血舍魂，肝氣虛則恐，實則怒。心藏脈，脈舍神，心氣虛則悲，實則笑不休。脾藏營，營舍意，脾氣虛則四肢不用，五藏不安，實則脹，經澁不利。肺藏氣，氣舍魄，肺氣虛則息利少氣，實則喘噎胸憑仰息。腎藏精，精舍志，腎氣虛則厥，實則脹，五藏不安。

3. 內經以後文獻

1) 太玄經²⁴⁾

玄數篇：藏脾，存志，性仁，情喜，事貌，用恭，攝肅，徵旱，帝太昊，神勾芒。

- ・藏肝，存魄，性誼，情怒，事言，用從，攝義，徵雨，帝少昊，神禰收。
- ・藏肺，存魂，性禮，情樂，事視，用明，攝哲，徵熱，帝炎帝，神祝融。
- ・藏腎，存精，性智，情悲，事聽，用聰，攝謀，徵寒，帝顯現，神玄冥。
- ・藏心，存神，性信，情恐懼，事思，用睿，攝聖，徵風，帝黃帝，神后土。

2) 五行大義¹¹⁾

白虎通云：肝之爲言扞也。肺之爲言費也。情動得序也。心之爲言任也，任於思也。腎之爲言賓也，以竅寫脾之爲言辨也，所以精稟氣也。

元命苞云：脾者辨也。心得之以貴，肝得之以興，肺得之以大，腎得之以化。

河上公注老子云：神謂五藏之神也。肝藏魂，肺藏魄，心藏神，脾藏意。五藏盡傷，則五神去矣。

道經義云：魂居肝，魄在肺，神處心，精藏腎，志託脾。

3) 黃帝內經と 中國古代醫學²⁵⁾

- ・先秦・漢初の典籍の中で最も詳細な心理分析が行われているのは<荀子>であらう。<荀子>には‘心’を慾望の源泉と見る先の如き記載もあるが、總じて<孟子>と同様に感覺や情動よに高次の精神機能と捉えられている。正明篇には‘心’の機能について次のようにいら。“性の好惡喜怒哀樂、之を情と謂ふ。情の然りと心、之が擇を爲す、之を慮と謂ふ。心慮りて能く之が動を爲す、之を僞と謂ふ……知る所以人に在る者、之を知と謂ひ、知りて合ふ所の有る、之を知と謂ふ。”
- ・ところで周知の通り、‘心’は五臟の一つである心臓の象形文字(心)であるが、‘心’の用例を見ると、そのことが明瞭に意識されてるものが少なくない。<老子>や<莊子>では‘心’が否定的に扱われていたが、それらと思想的な基調を一にする<淮南子>の精神訓。原道訓や<管子>四篇(心術上、下、内業、白心)では‘心’の機能を‘神’{とほぼ同様の、道に適つたすぐれたはたらきの面から捉えよらともさ っていた。それは‘心’を體內

における‘神’の所在とする、局在論的な認識が深まつたためと思わ。

- ・人體における精神の所在をどこに求めるいは古代の諸民族で一定していない。ギリシアのヒポクラテスは早くも腦説を唱えたといらうが、古代中國においてはもろ心臓ではつた。悲哀の情を抱けば胸が塞がり、怒つたり恐れたりすると鼓動が激しくなることは誰もが経験するところであらう。精神の所在を心臓に求めることは、そらした朴素な經驗に基づくものどあるが、<內經醫學>に至るとさらに精神の局在論的認識が發展し、五臟各々が固有の精神機能を有すると考えられるよらになつた。

- ・すなわち廣義の<神>と生命現象を統一的につかさどる靈妙不可思議なるはたらきの總稱である。そのはたらきはさらに五臟が所藏する魂、神、意、魄、志の五つに分割され、心臓に舍るところの<神>が各種精神機能を統轄する狹義の<神>とされているのである。すなわち體內における精神の所在は、先に見た<淮南子> や<管子>より局在化が進んでいるのであるが、その中心が心臓であることは變わりがない。

4) 氣流れる身體²⁶⁾

春秋時代の歴史を記した書、<春秋左氏傳>の紀元前五三五の部分に記された子産という人の言葉と、後代の註釋に基づけるは、魄は‘形’、すなわち‘場’としての身體’の靈、魂は‘氣’、すなわち‘流體’としての身體’のそれ、ということになる。魂、魄は、‘こころ’の代表的性格の強い‘神’に較べて、より靈魂的なものといえよう。

5) 丹學과 鍊金術¹³⁾

守一은 後漢의 <太平經>에서 重視한 것으로서 ‘五臟觀’을 同伴한 精思이다。五臟觀이란 五臟神을 存思하는 方法인데、後漢末의 <申鑒>에 있는 ‘歷臟內視’도 그것에 該當한다고 한다。그리고 葛洪의 <抱朴子>의 守一은 體內神을 存思하는 方法을 가장 잘 전하고 있다。體內神에 對해서는 이 外에도 <老子>、河上公章句나 <黃庭內景經> 等に 昭詳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은 守一의 事實이다。단지 筆者가 主張하고자 하는 것은、이들 體內神의 起源이 더욱 遡及되어 前漢의 <黃帝內經>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이 神은 心臓에 寓 되어 있지만 同時에 肺、肝、脾、腎에도 혹은 腦에도 있다。

6) 東醫寶鑑의 道敎의 性格¹⁵⁾

神은 精神作用을 통털어 부르는 概念으로서 心臟部位에서 이를 總括한다고 한다. 古代의 中國思想에서 舉論되는 神의 概念은 크게 세가지로 區別된다. 첫째 祭祀의 對象인 超越的인 神들로서 天神등이 그것이며, 둘째 自然界에 있어서 氣가 發揮하는 神妙한 作用의 意味이며, 셋째 人間의 精神的 作用의 意味이다. <黃帝內經>의 境遇는 둘째와 셋째가 함께 該當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神은 人間의 精神作用을 意味하는데 이것은 氣의 神妙한 作用에 歸着된다고 보는 것이다. <黃帝內經>의 神概念 가운데 特異한 것은 神의 作用이 人體內의 五臟에 따라 다섯 가지로 大別된다는 觀點이다. 이 觀點은 神을 다시, 志, 神, 魂, 魄, 意의 다섯 가지로 細分하여 各各 腎臟, 心臟, 肝臟, 肺臟, 脾臟에 關聯시키는 見解이다. 그러나 各 概念의 意味는 分明치 않다. 어찌든 이렇게 五臟에 各各 그에 相應하는 精神作用을 關聯시키는 것은 <太經>이나 <道德經>에 대한 ‘河上公註’等 漢代의 道敎思想에 폭넓게 반영되어 있었다. <黃庭內景經>의 境遇에는 五臟神뿐 아니라 人體內에 무수히 많은 神이 存在한다는 思想에 到達하였다.

7) 內經의 哲學和 中醫學的方法²⁷⁾

“神”這個概念有多種涵義和用法, 歸納起來主要有以下三種

- (1) 指自然界物質運動變化的功能和規律,
 - (2) 指生物和人體的一切生命活動和生理機能,
 - (3) 指人的精神意識.
- 8) 中國醫學과 哲學³⁾

· ‘五臟’이라 부른 것은 大略 <管子>가 쓰여진 무렵부터 始作되었는데, 戰國時代 末期에 秦나라 呂不韋가 編纂한 <呂氏春秋>에는 ‘五臟祭祀’가 登場하고 있다.

· 前漢과 後漢을 通하여 學術界에서는 今文學派와 古文學派의 對立이 있었다. 두 學派의 五行圖式에서 가장 큰 差異點은 이 五臟問題라고 생각된다. <禮記>나 <洪範五行傳> 등은 <呂氏春秋>의 五行配列에 따르고(이것을 ‘古文尙書說’이라고 한다), <淮南子> ‘地形訓’이나 <白虎通> 등은 다른 五臟配列을 따르고 있다(이것을 ‘今文尙書說’이라고 한다). 內經醫學은 今文尙書說을 따르고 있다.

9) 素問今釋¹⁷⁾

神是人體生命活動的總稱, 也是對精神意識, 思惟活動, 以及臟腑, 精, 氣, 血, 津液活動外在表現的高度概括. 神, 魂, 意, 魄, 志, 統屬廣義 “神”의 範疇之中. <內經>根據 “五臟神”의 理論, 提出五臟不同的功能直接決定着情志活動, 情志活動也反映了臟腑的功能情況.

III. 考 察

‘神’은 여러 가지 뜻을 지닌 말로 劉²⁷⁾는 “첫째, 自然界에 있는 모든 物質의 運動變化하는 機能과 規律. 둘째, 生物과 人體의 모든 生命活動 및 生理機能. 셋째, 사람의 精神機能”으로 보았다. 黃¹⁾은 “思想意識 및 모든 生命活動의 現象. 즉, 生命力을 나타내는 하나의 抽象名詞”라 하였고, 王¹⁷⁾은 “生命活動뿐 아니라 精神이나 意識, 思惟活動의 總稱”이라고 規定하였다.

五臟에 配屬시킨 精神을 ‘五神’^{3,13,15,16,17)} 또는 ‘七神’³⁾이라 부르는데, “心藏神, 肺藏魄, 肝藏魂, 脾藏意, 腎藏志, 是謂五藏所藏”¹⁴⁾이라 하여 五臟에 各種 精神現象이 配屬된다고 하였다. <本神篇>²⁾에는 “生之來謂之精, 兩精相搏謂之神, 隨神往來者謂之魂, 並精而出入者謂之魄, 所以任物者謂之心, 心有所憶謂之意, 意之所存謂之志, 因志而存變謂之思, 因思而遠慕謂之慮, 因慮而處物謂之智”라 하여, 生命의 形成에서 各種 精神活動의 存在方式을 具體的으로 規定을 하고 있다.

古代西洋에서는 精神을 五官의 이고 物質的인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時代의 흐름에 따라 多數의 精神을 하나로 統一 시키려는 傾向이 나타났고, ‘搏動精神’이나 ‘血液精神’을 認識하기에 이르렀다³⁾. 그러나 東洋에서는 하나의 精神을 찾는 것이 아니라, 多數의 精神으로 分類하고, 그것들을 身體안의 特定한 臟器와 關聯짓는 方向으로 研究 되어졌다.

精神을 身體의 器官과 關聯지으려는 試圖은 戰國時代에 처음 나타나지만, 그 以前에는 胸部나 腹部를 精神과 關聯시켰다.³⁾ <書經·盤庚下篇>⁵⁾에서, 자기 뜻을 밝히는 것을 “心腹腎腸을 펴서”라고 表現하고, 또 <詩經·大雅桑柔篇>⁴⁾에는 스스로 어리석은 所見을 내세운다는 것을 “自有肺腸”이라 하여 各各의 臟器를 精神의 자리로 삼는 傾向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春秋左氏傳·定公篇>²²⁾에 “王割子期之心 以與隨人盟”이라는

것과, <史記·趙陽列傳>¹²⁾에 “兩主二臣, 剖心坼肝相信”과 “披心腹, 見情素, 隨肝膽, 施德厚”에서 心臟을 열어서 真心을 보인다는 象徴的 行爲를 볼 수 있으며, 心臟 外에 肝膽도 쓰인 것은 精神의 자리가 多樣化되었음을 表示한다.

<荀子·解蔽篇>¹⁰⁾에서 感覺器官을 ‘天官’으로, 思惟器官을 ‘天君’이로 取扱하였는데, “天官은 바깥의 事物과 接觸하지만 서로 다른 器官의 機能을 代替할 수 없기 때문에 가슴의 빈곳에 있는 天君이 그것들을 支配하고, 全體를 充分히 活動시키는 中心의 役割을 다하는 것이다”라 했고, “心者形之君也, 而神明之主也”¹⁰⁾라 하였으며, <管子·心術上篇>²³⁾에 “心之在體, 君之位也, 九竅之有職, 官之分也”라 하여 心은 身體의 君主로서 모든 器官을 統制하는 中樞器官임을 說明하였다.

五臟에 精神을 配屬시키는 여러 學說을 詳細하게 紹介한 것은 隋나라 사람 蕭吉의 <五行大儀>¹¹⁾이다. 먼저 五臟의 機能에 對하여 <白虎通·性情篇>¹¹⁾을 引用해서, “肝之爲言扞也. 肺之爲言費也. 情動得序也. 心之爲言任也, 任於思也. 腎之爲言賓也, 以竅寫. 脾之爲言辨也, 所以精稟氣也”라 하여 肺가 感情의 調節, 心臟이 思惟作用, 脾臟이 精神活動을 이루는 精氣를 辨別하는 作用, 腎臟은 生理作用을 맡으나, 肝의 機能은 分明치 않아서 반드시 五臟 모두가 精神을 掌管한다고는 하지 않았다. 五臟 全體에 精神의 자리를 求하는 것은 <管子>⁷⁾나 <莊子>⁸⁾가 처음이다.³⁾ <管子·五行篇>⁷⁾에는 “堯反五藏”이라는 말이 있고, <莊子·在宥篇>⁸⁾에는 “愁其五藏 以爲仁義”라는 表現에서 보듯이 道德도 精神의 範疇에 들어가고 五臟에 뿌리를 둔다는 것이다. 仁義를 五臟에 聯關시키는 思考方式은 戰國 末期에서 秦漢에 걸쳐 儒家사 이에서 나왔으며, 漢代가 되면 五性(仁義禮志信)과 五臟을 對應시키고 細目끼리 連結짓는 道德의 五臟 配屬이 나타난다.³⁾ 司馬遷의 <史記·樂書篇>¹²⁾에 “音樂者, 非以娛心自樂, 快意恣欲, 將欲爲治也. 所以動 血脈, 通流 精神而和正心也. 故宮動脾而和正聖, 商動肺而和正義, 角動肝而和正仁, 徵動心而和正禮, 羽動腎而和正智”라는 文章을 보면, 音樂은 血脈 精神에 影響을 주고 各 音階는 各各 該當하는 臟器를 刺戟하여 그 臟器가 만들어 내는 道德 感情을 調和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翼奉¹¹⁾은 ‘五性六情’을 言及 했는데, 五性이란 “肝-靜-仁, 心-躁-禮, 脾-

力-信, 肺-堅-義, 腎-智-敬”을 말하는 것으로, 이런 種類의 圖式은 前漢 中葉에 出現하는 緯書에서도 나타난다.

人間의 感情인 五情은 先秦의 文獻^{9,10,22)}에 자주 나온다. <春秋左氏傳·昭公>²²⁾에는 “民有好惡, 喜怒, 哀樂, 生于六氣”라 하고, <荀子·天論篇>¹⁰⁾에는 “天職 이미 서고 天功 이미 이룩되고, 形體가 갖추어지고 精神이 생긴다. 好. 惡. 喜. 怒. 哀. 樂은 여기에 있다. 대저 이것을 天情이라고 부른다”고 하여, 五情은 氣 또는 心의 作用이고, 처음부터 內臟의 여러 器官에 나뉘어 存在한다는 생각은 없었다. 그 以前에 먼저 五情을 계절이나 方位에 對應시키려 하였는데, 董⁹⁾은 <春秋繁露·陰陽義篇>에서 “天亦有喜怒哀樂之氣, 哀樂之心, 與人相副. 以類合之, 天人一也. 春, 喜氣也, 故生; 秋, 怒氣也, 故殺; 夏, 樂氣也, 故養; 冬, 哀氣也, 故藏”이라 했고, “夫喜怒哀樂之發, 與清暖寒暑, 其實一貫也. 喜氣爲暖而當春, 怒氣爲清而當秋, 樂氣爲太陽而當夏, 哀氣爲太陰而當冬, 四氣者, 天與人所同有也, 非人所能蓄也”⁹⁾라 하여, 人間의 情緒와 계절 사이의 對應關係를 說明하였으나 五行圖式으로는 定立되지 못했다.

精神의 다른 次元인 神을 五行圖式에 配屬시키게 된 것은 性과 情의 五臟 配屬 以後이다.³⁾ 加納³⁾은 五神의 概念이 成立한 時期를 前漢 中期에서 末期에 걸치며 緯書의 出現과 같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精神의 五臟 配屬關係를 展開하고 있는 內經이 책으로 만들어지는 年代와도 關聯이 있다. 村上¹³⁾은 五神의 起源을 <黃帝內經>에 두고 있다. 醫書가 아니면서 精神의 所在處를 五行圖式에 記錄한 楊雄의 <太玄經>²⁴⁾이 있는데, 다만 五行 配列表에서 <太玄經>은 古文學說을, <黃帝內經>은 今文學說을 採擇하고 있다.

<靈蘭秘典論篇>¹⁴⁾에 “心者, 君主之官也, 神明出焉”과, <五色篇>²⁾에 “積神于心, 以知往今”, <天年篇>²⁾에 “五藏已成, 神氣舍心, 魂魄畢具, 及成爲人”이라 하여 精神作用의 主體를 心臟으로 삼았다. 또한 “心臟脈 脈舍神, 肝藏血 血舍魂, 肺藏氣 氣舍魄, 脾藏營 營舍意, 腎藏精 精舍志”^{2,16)}라 하여 精神作用도 五臟의 活動과 相互協助하여 이루어 진다는 心身一如의 生命現象을 說明하고 있다.

<大惑論>²⁾에 “神勞則魂魄散, 志意亂”이라 했으며, <本神篇>²⁾에 “心思慮則傷神, 脾愁憂而不解則傷意, 肝悲哀動中則傷魂, 肺喜樂無極則傷魄, 腎盛怒而不止則傷志”라 하

여 精神作用의 外的 表現인 感情의 偏向이나 過極은 五臟의 機能에도 影響을 주어, 正常的인 生理機能을 損傷시키다²⁸⁾는 것이다. 그러므로 五神은 精神作用을 理解하는 가장 基本的인 概念인 同時에 精神疾患의 病因을 把握하는 理論的 根據를 提示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本 論文에서는 歷代 文獻에 나타난 五神의 起源을 살펴 보았으며, 앞으로 五神의 變遷過程에 對한 研究가 必要하다고 思料된다.

IV. 結 論

歷代 文獻을 中心으로 五神의 起源에 關하여 考察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精神을 五臟의 特定한 臟器와 聯關시킨 時期는 戰國時代부터이며, 心臟은 모든 器官을 統制하는 中樞器官인 同時에 精神作用의 主體로 認識했다.

2. 精神을 五臟 全體와 關聯지어 記錄한 것은 <管子>와 <莊子>가 처음이다.

3. 五神의 成立 時期는 前漢 中葉에서 末期에 걸치며, 性과 情의 五臟配屬 以後이다.

4. 五神의 起源은 <黃帝內經>이며, 今文學說의 五臟配列에 따라 肝藏魂, 心藏神, 脾藏意, 肺藏魄, 腎藏志로 配屬되었다.

參 考 文 獻

1. 黃義完 外 : 東醫精神醫學, 서울, 現代醫學書籍社, pp53-54, p 56, 1992.
2. 郭靄春 : 黃帝內經 靈樞校注語譯, 서울, 醫聖堂, p81,141,330,368,526, 1993.
3. 可納喜光 : 中國醫學과 哲學, 서울, 驪江出版社, p170, pp176-179, p186,194, pp204-214. 1991.
4. 詩經, 大牙桑柔篇.
5. 書經, 盤庚下篇.
6. 陳奇猷 : 呂氏春秋校釋, 上海, 學林出版社, p1,

- 1990.
7. 富山房編輯部 : 管子 (漢文大系 21), 東京, 富山房, p17, 1984.
8. 陣鼓應 : 莊子今注今譯, 北京, 中華書局, p273, 1991. 9. 蘇輿 : 春秋繁露義證, 北京, 中華書局出版社, p318,330,341, 1988.
10. 富山房編輯部 : 荀子(漢文大系 15), 東京, 富山房, p14,24, 1984.
11. 中村璋八 : 五行大義校註, 東京, 汲古書院, p102-105, 1984.
12. 馬持盈 : 史記今註,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p1225,2495,2499, 1988.
13. 村上嘉實 : 丹學과 鍊金術, 道教와 科學(都光淳編), 서울, 比峰出版社, p103, 1990.
14. 郭靄春 : 黃帝內經 素問校注語譯, 서울, 醫聖堂, p62,154, 1993.
15. 金洛必 : 東醫寶鑑의 道教的 性格, 科學과 哲學 第2集(科學思想研究會 編), 서울, 통나무, pp64-65, 1992.
16. 楊上善 : 黃帝內經大素, 서울, 大星出版社, p53,pp55-56, 1986.
17. 王琦 外 : 素問今釋, 貴州, 貴州人民出版社, p123, 1981.
18. 黃義完 外 : 內經에 나타난 神에 關한 考察, 大韓韓醫學會誌, 7(1) :105,106, 1986.
19. 柳東仁 : 七情에 關한 文獻的 考察, 東醫神經精神科學會誌, 3 (1) :3, 1992.
20. 嚴泰植 : 七情傷에 對한 小考, 大韓韓醫學會誌, (5)1 :145, 1984.
21. 陳廣忠 : 淮南子釋註, 吉林, 吉林文史出版社, p301, 1990.
22. 楊伯峻 : 春秋左傳注, 北京, 中華書局, p1458,1547, 1993.
23. 朴奭濬 : 管子四篇 等에 나타난 精氣說 考察, 慶熙大學校大學院, p32,38,61,65,83, pp93-94, 1993.
24. 鄭萬耕 : 太玄校釋, 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pp294-296, 1989.
25. 丸山敏秋 : 黃帝內經と中國古代醫學, 東京, 平河出版社, p216-223, 1988.

26. 石田秀實 : 氣流れる身體, 東京, 平河出版社, p97-99, 1992.
27. 劉長林 : 內經의 哲學和 中醫學의 方法, 北京, 科學出版社, p104 -105, 1982.
28. 黃義完 : 心身症, 서울, 杏林出版, p33, 1985.

= ABSTRACT =

A BIBLIOGRAPHIC STUDY ON THE ORIGIN OF O-SHIN(五神)

Sang-Hee Yoon, Sang-Ryong Lee
Department of Oriental
Neuropsychiatry,
Tae Jon University

From the consideration of the stages and their origins assigned to the five elements by connecting O-Shin(五

神) with the five organs, centered on former documents, followings were achieved.

1. From the age of civil wars, the mind has been connected to the particular organ among the five organs : the has been considered as the main body of mind activity and the central organ which controls every organ.
2. KWAN-JA(管子) and JANG-JA(莊子) wrote firstly written in connection between the mind and the whole five organs.
3. O-SHIN(五神) were materialized through the middle part and last year of Former China and after the five organs assignment of the nature and the emotions.
4. O-SHIN(五神) originated from HWANG-JE NAE-KYUNNG(黃帝內經) assigned as the liver soul, the heart spirit, the spleen ideas, the lung inferior spirit, and the kidney will.